

# VINEXPO Asia-Pacific 2008 참관기

차흥기 기획조사팀장



주류는 인류탄생과 더불어 공존했던 것 중 하나이다. 고대에서 19세기 의약품이 제조되기 전까지 의약품, 외상치료제, 안정제,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도 했다.

세계 각국의 주류는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되어 각기 독특한 특성과 다양함을 내포하고 있어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주류를 경험하기란 일부 주류산업종사자와 여행가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VINEXPO는 1981년 프랑스 포도주의 주산지인 보르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내년에 제15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세계 제일의 국제와인박람회이며, VINEXPO OVERSEAS는 프랑스에서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되는 전시회로 1998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7회를 맞이하며, 지역 특성을 가미한 전시를 통해 와인 수요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 VINEXPO OVERSEAS

- 제1회 : VINEXPO ASIA-PACIFIC HONGKONG, 1998년
- 제2회 : VINEXPO ASIA-PACIFIC TOKYO, 2000년
- 제3회 : VINEXPO ASIA-PACIFIC TOKYO, 2002년
- 제4회 : VINEXPO AMERICA NEW YORK, 2002년
- 제5회 : VINEXPO AMERICA CHICAGO, 2004년
- 제6회 : VINEXPO ASIA-PACIFIC HONGKONG, 2006년
- 제7회 : VINEXPO ASIA-PACIFIC HONGKONG, 2008년

「VINEXPO 아시아,태평양전시회」는 5월 27일부터 3일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와인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와인에 대한 맛과 향을 음미하고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2개국에서 692업체가 출품을 했으며 관람객은 8,000여 명이 등록해 방문했다고 한다.

전시된 부스의 면적이나 출품제품수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으로(전시면적의 1/3이상) 많았으며, 전통적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이 뒤따르고,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이 중간규모로 전시관을 운영했다.



보르도 와인 부스



이탈리아관



선운산 동백 복분자 부스



국순당 부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오랜 연륜 속에서 깊이 있는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설정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와인 감정가 단체인 Ficofi 주최로 프랑스에서 공수된 그랑끄꾸, 버건디, 보르도, 샴페인, 에르미타주, 소테른 등 여러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와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와인 종사자와 일반소비자들에게 알맞은 와인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기자들에게 홍보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 행사의 컨셉은 우아한 청자의 자태처럼 조용하면서 은은히 매력적으로 피어나는 꽃을 형상화하여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전시회와 차별화 하였다. 주요 관람객으로는 일반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주류산업종사자들이 참관하여 주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입수와 많은 전시부스에서 비즈니스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우리나라는 aT센터(농산물유통공사)주관으로 전통주, 민속주 등 8개업체로 구성된 한국관을 조성해 참가하였으며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원사로는 보해양조(주), (주)국순당이 참여하였다.

대한주류공업협회는 8월 21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울 COEX에서 「제2회 대한민국 주류박람회」를 국내 주류제조사를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규모는 홍콩전시회와 비슷한 규모로 우리나라 고유의 은근한 미



보해양조 부스



보해 복분자 시음

를 추구하며 멋을 풍미 하고 짜임새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류전시회로 발전시켜 해외의 전통있는 주류전시회와 경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지난 2007년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주류전시회에 대한주류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참여하여 국내주류를 홍보한 결과 중국주류종사자와 일반관람객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었듯이, 향후 우리나라 해외 홍보를 위해서는 해외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국내주류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